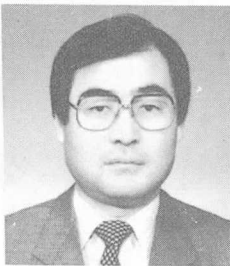


기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중요



김 원 태
(주)퓨리나코리아 양돈기획부장

현재 국내 양돈업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돈업 자체 문제보다는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과거에는 단지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불황이 지속되다 다시 호황국면으로 접어드는 단순한 호·불황 주기를 반복해 왔으나, 근래에 들면서 기존 주기가 단순히 반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겠으나, 주로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쇠고기, 돈육가공품의 증가 및 공해 문제와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호황국면에 접어들어도 두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돈가형성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요인들에 의해 국내 양돈업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양돈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형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경영형태로 전환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들 중 개선할 점이 있는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올바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야만 굳건한 양돈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관리를 잘 하는 양돈장도 많이 있으나 그 중 몇가지 점을 개선한다면 보다 나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개선해야 할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기록

일반적으로 양돈장의 기록체계는 모돈과 일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철저한 기록 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록이 없이는 농장의 문제점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 양돈장의 기록체계는 모돈과 일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 확인보다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생산성을 올리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농장들도 일보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체계적인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숫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을 하는 목적은 단순한 결과 확인보다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생산성을 올리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사료회사들이 기록 및 분석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기록부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회사의 경우도 여러 형태의 기록부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컴퓨터를 도입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에 연간 자금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내실있는 양돈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2. 사양관리

사양관리 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고 생각된다. 사료비가 비육돈 생산의 60~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어느 사양가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나, 의외의 허점도 많다. 즉, 전체 생산성보다 사료단가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관리상에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다. 먼저 모돈 분야를 보면 임신중 사료급여가 과다하여 모돈이 과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료낭비 뿐 아니라 모돈의 수명도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에 유럽에서 들어온 종돈이 많아 등지방 두께가 아주 얇은 모돈이 많아 과비시키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사료급여로 얼마든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신돈 관리는 모돈 체형에 따른 철저한 제한급이를 통해서만이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 비육돈 사양관리를 보면, 가장 관심어안 기울이는 부분이나 의외로 생산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다.

육성비육돈 사양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료허실일 것이다. 실제 사료허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료허실이 약 5% 정

도 또는 그 이상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5% 정도 허실이 된다면 비육돈 두당 10kg에 이르며 모돈 100두 규모의 양돈장의 경우 연간 20톤 정도의 사료를 낭비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료허실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급수관리

다른 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에 급수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수관리는 양호하나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급수기의 높이나 수압이 적절하지 못해 물의 낭비가 많아 폐수량이 증가하거나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해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4. 시설

현재 국내에는 현대화된 많은 기구나 시설들이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다. 원래 기구나 시설들은 돼지의 생리에 알맞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에 맞도록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은 성적도 올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구나 시설을 도입할 경우 그 정확한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 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회사에서 자돈용 케이지를 보급했을 때 정확한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양가들이 케이지 설치후 겨울철 냉해로 인해 케이지를 다시 철수한 경우가 있었다. 원래 케이지는 이우 자돈사의 보온이 전제되어 설치해야 효과적인 시설인데 돈사보온을 도외시하고 설치하여 피해를

본 경우라 하겠다. 지금도 케이지를 설치하고 냉해를 막기 위해 케이지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깔아주는 농장들이 많은데, 이것은 케이지 사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는 예라 하겠다.

5. 질병관리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돼지사육에는 비교적 불리한 편이며, 소모성 질병도 많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농장들이 사료에 약품을 계속적으로 첨가하여 사육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약품첨가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지연되거나 위축되어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져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것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입전출 시스템을 적용하여 질병의 차단 및 예방에 힘쓴다면 질병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첨가제 사용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과잉 공급되어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용시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양돈장의 관리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대다수의 양돈장이 훌륭한 관리를 하고 있어 생산성은 계속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외적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육질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타 육류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과 육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관리상태를 한번쯤 점검하여 개선점을 찾아 고쳐가면서 경쟁력을 갖출 때라고 생각된다.